

유형 : 자아성찰형

제목 : 나도 그럴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 “한 번만 더 알려줘..”. 나에게는 쉬운 것, 그러나 부모님은 어려운 것. 나는 늘 선생님이 되어 부모님을 가르친다. 신문물에 익숙한 나와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과 거리가 생긴다. 서로 하는 일이 많아져 그만큼 예민해져 있는 지금, 부모님은 늘 한 번 물러섰다가 다가오신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 학생들이 많이 하는 놀이 등 여러가지를 알아 와 물으시곤 한다. “요즘 이거 유행이라고 하던데 맞아?”, “이거 우리 같이 해보자!”. 난 늘 피곤한 상태로 말한다. “다음에”.

실망한 표정이 가득하다. 아니, 서운해 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늘 힘들다는 핑계를 댄 후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친구들과 연락하며 웃고 떠든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은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집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래도 표정으로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보다. 거실에서 쉬고 있으면 먼저 말을 걸며 오늘은 어땠는지 물어보신다. 그 질문에 내가 하는 말은 길지 않은 대답 하나, 힘들었어. 그런 나의 눈치를 보시며 살금살금 다가오시는 엄마가 묻는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 항상 힘들 때만 되면 옆으로 다가와 묻는 엄마가 너무 답답했다. 아니, 싫었다. 통명스럽게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면 엄마는 늘 ‘아!’라며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다음에 또 알려 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한다. 귀찮다는 생각이다. 며칠 후 아빠가 물어보신다. “저번에 작업해 준 거 잘 안 되던데 한 번 더 해 줘봐.”, “저번에 해줬는데 또 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이 발달돼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나에게 먼저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터넷 좀 찾아봐. 스마트폰 쓰고 있으면서 왜 사용을 안 하는거야? 그럼 그냥 폴더 폰을 사서 써.”

방에 들어와 친구들과 메신저로 이런저런 말을 한다. 역시나! 말이 통하니 시간도 빨리 간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씻으러 나간다. 거실로 나가니 아직도 헤매고 계신다. 몇 번을 알려줬는데 왜 기억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부모님을 지나쳐 미웠던 내 일을 끝내고 잠을 청한다.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또 물어보신다. 나는 또 짜증을 낸다. 늘 같은 말과 늘 같은 행동. 부모님은 화내신적 없으시다. 날 타이르셨다.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래.. 익숙한 너가 도와주라”.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직 3개. 문자, 전화, 카카오톡. 그 외의 SNS는 작동법이 어렵다며 가르쳐 달라고 하신다. 마음이 짱하다. 나도 잘 알고있다.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해내고 싶으신지. 그치만 나도 힘든걸..

방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SNS를 한다. 난 이렇게 쉬운데 뭐가 어려워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20대, 태어났을 때부터 과학이 발달되어 기계를 다루는데 능숙했다. 부모님은 40대, 기계는 무슨. 먹고 살기 바빴다. 이렇게 다른 우리, 다른 만큼 공감하고 싶어하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는 나. 가끔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한다.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자

식들과 혹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노력할까?

새벽감성이 무서운 거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늘 새벽녘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눈뜨면 똑같은 반응, 똑같은 행동. 나도 늘 다짐하고 다짐한다. 미래의 나도 그럴 수 있기에.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 내가 만약 40대라면, 내가 자식이 있다면 지금 부모님처럼 똑같이 행동하겠지. 미래에 어떻게 될 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이를 먹어 30대가 지나 40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 유행할 신문물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부모님처럼. 요즘 나는 지난 날의 내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생각한다. '나도 그럴 수 있어'.